

# '또 터졌다' 손흥민, 토트넘 복귀하자마자 역전 결승골

### 1-1 맞선 후반 41분 승패 갈라...루턴 타운에 승리 4위 탈환 손흥민, 3경기 연속 골...시즌 15호·토트넘 통산 득점 5위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경기 막판 짜릿한 결승골을 뽑아내며 한창 4위 싸움에 바쁜 토트넘(잉글랜드)에 귀중한 승점 3을 안겼다.

손흥민은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루턴 타운과 홈 경기 후반 41분 역전 골을 터뜨리며 팀의 2-1 승리를 이끌었다.

손흥민은 1-1로 팽팽하던 후반 41분 왼 측면을 질주하던 티모 베르네에게 전진 패스를 공급한 후 페널티지역으로 쇄도했다.

베르네가 측면에서 넘겨준 패스가 브레넌 존슨을 거쳐 골대를 정면으로 마주 본 손흥민에게 연결됐고, 손흥민이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다.

득점 직후에는 전매특허인 '찰크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홈팬들을 열광케 했다.

이는 손흥민의 시즌 15호 골이다. 지난 21일, 26일 열린 한국과 태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경기에서 2골을 뽑아낸 손흥민은 소속팀으로 돌아가자마자 골 소식을 전했다. 공식전 3경기 연속골이다.

손흥민은 소속팀, 대표팀을 합쳐 3월 치를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쓸어 담았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올 시즌 리그에서 15골 8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재러드 보언(웨스트햄),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EPL 득점 순위에서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이 부문 1위는 맨체스터 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18골)으로, 손흥민과 3골 차다.

더불어 이 골로 손흥민은 토트넘 구단 역대 득점 순위에서 단독 5위에 이름을 올렸다.

160골이 된 손흥민은 1960년대 활약한 웨일스 출신 공격수 클리프 존스(159골)를 넘었다.

전반 19분 골키퍼까지 제친 후 찬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좌우 측면 골대를 연속으로 강타하며 골문 밖으로 흘러 아쉬움을 삼킨 손흥민은 기어코 득점 포를 가동하며 웃었다.

그는 후반 43분 미드필더 피에르에밀 호이비에르와 교체될 때까지 88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타이트 총애계 선제공격을 내준 토트넘은 후반 6분 상대 자책골을 끌어내며 승부에 균형을 맞췄고, 손흥민의 '한방'으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했다.

승점 3을 따낸 토트넘(17승 5무 7패·승점 56)은 30라운드에서도 5위에 자리했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의 마지노선인 4위는 아직 애스턴 빌라(18승 5무 7패·승점 59)다.

루턴 타운전 직후 다득점(60골)에서 앞서 토트넘이 잠시 4위 자리를 뺏겼으나 애스턴 빌라가 곧장 열린 30라운드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을 2-0으로 꺾으면서 토트넘을 다시 5위로 밀어냈다.



손흥민이 3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0라운드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4위 탈환을 노리는 토트넘은 애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현재 두 팀의 승점 차는 3이고, 골 득실은 애스턴 빌라(+20)가 토트넘(+18)에

앞섰다. 한편 루턴 타운은 강등권인 18위(5승 7무 18패·승점 22·골 득실 -19)로 주저앉았다. 재정 규정 위반으로 승점 4가 깎인 노팅엄 포리스트(6승

8무 16패·승점 22·골 득실 -16)가 이번 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무승부를 이뤘다. 다시 17위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 광주도시공사, 대구시청 제물로 3연패 탈출

### 27-19 승...김금정 7득점 9도움 활약

광주도시공사가 대구시청과의 경기에서 승리했다.

광주도시공사는 31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3-2024 H리그 3라운드 대구광역시청과의 경기에서 27-19로 이겼다. 김금정이 7득점, 9도움으로 활약했고, 골키퍼 박조은은 44%의 방어율로 11세이브를 기록했다.

경기 초반 대구시청이 리드를 잡았지만 도시공사가 동점을 만들면서 두 팀은 접전을 펼쳤다.

전반 14분 5-7상황 서아루가 김금정에 넘겨준 공을 빠르게 슈팅하며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대구시청의 반칙으로 7M 드로우 기회가 만들어졌고 서아루가 재차 득점하며 7-7 동점을 만들었다.

전반 17분 대구시청 최경민의 골로 7-8.

곧바로 김지현이 리닝슛으로 득점하며 8-8 동점을 만들었지만 대구시청 허수림이 골을 넣으며 다시 한 점차가 됐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은 작전타임을 요청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김지현과 김금순이 각각 전반 20분과 22분 7M 드로우에서 득점하며 10-9 역전에 성공했고 전반 23분 김금정이 9M 득점을 내며 도시공사는 점수 차를 11-9로 벌렸다.

대구시청은 다시 도시공사를 따라잡기 위해 애썼다. 대구시청 최경민과 지은혜가 각각 전반 24분, 27분에 득점하며 11-11로 따라잡았고, 전반 29분엔 최경민이 강력한 슛을 날렸지만 도시공사 박조은이 선방하며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반전을 약 10초 남긴 상황, 도시공사가 남은 공을 잡고 김금정이 곧바로 상대 진영을 파고 들었다. 그대로 바운드 패스로 김수민에게 이어진 공은 전반전을 2초 남기고 대구시청의 골문을 흔들었다. 도시공사는 12-11로 전반전을 마무리 했다.



광주도시공사 정현희가 31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대구시청과의 경기를 펼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후반전에서도 도시공사가 흐름을 이어가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후반 1분 이한솔이 득점하며 13-11. 후반 3분 대구시청 최경민이 득점하며 13-12를 만들었다. 도시공사는 후반 4분 김금정의 득점으로 14-12를 기록한 뒤 후반 16분까지 연이어 7득점을 올리며 8점의 점수차로 대구시청을 완벽하게 따돌렸다.

전반 27분 김지현의 득점으로 도시공사는 29-17을 기록했고 이어 대구시청 허수림과 정영우가 경기종료를 1분 남기고 6M 득점을 올려 29-19로

경기가 마무리 됐다.

대구시청을 상대로 승리한 도시공사는 이번 경기로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대구시청은 18연패를 기록했다.

현재 도시공사는 6승 1무 11패, 승점 13점을 기록하며 부산시설공단(승점14점·5위)과 승점 1점 차로 6위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도시공사는 4월 3일 오후 5시 50분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SK슈가글라이더즈와의 경기를 펼친다. /김진아 기자 jinggi@

##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3경기만에 첫 홈런

### 한국선수로는 15번째

###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에 승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사진)가 두 번째 타석까지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유격수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벽을 뚫지 못했다. 하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타구를 외야로 보내며 3경기 연속 타점을 올리더니 네 번째 타석에서는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작렬했다.

이정후는 지난 31일 열린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시즌 샌디에이고와의 방문 경기에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2타점을 올렸다.

하이라이트는 8회였다.

샌프란시스코가 3-1로 근소하게 앞선 8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는 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에서 샌디에이고 왼손 불펜 투 코스그로브의 시속 125km 스윙퍼를 잡아당겼다. 타구는 시속 168km로 124m를 날아가 우중간 외야 관중석에 안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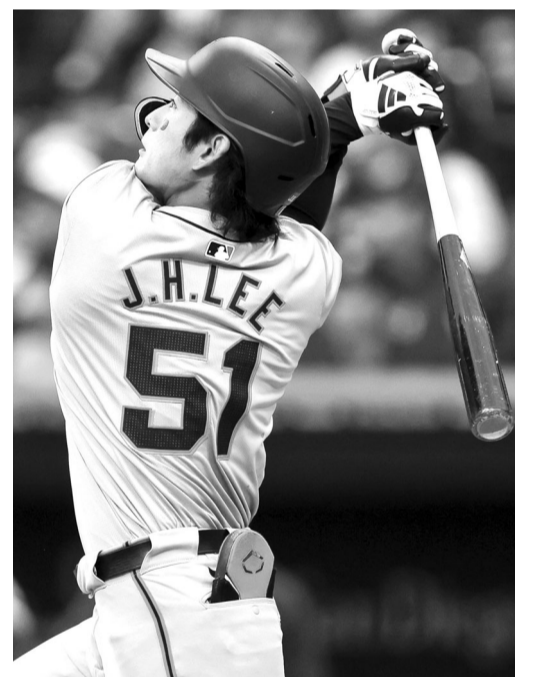
29일 빅리그 데뷔전에서 3타수 1안타 1타점을 올린 이정후는 30일에는 첫 멀티 히트(5타수 2안타 1타점)를 달성했고, 이날은 홈런포까지 쏘아 올리며 바람불이를 시작했다.

올해 빅리그에 진출한 이정후는 3경기에서 12타수 4안타(타율 0.333), 1홈런, 4타점으로 순항 중이다.

이정후가 마수결이 아치를 그리면서 MLB에서 홈런을 친 한국인은 15명으로 늘었다.

추신수, 강정호, 최희섭, 최지환, 김하성, 이대호, 박병호, 김현수, 박흥준, 박찬호, 류현진, 백차승, 황재균, 배지환이 이정후에 앞서서 손맛을 봤다.

5번 타자 유격수로 나선 김하성은 이정후의 안타성 타구를 두 차례 견어내는 등 '2023년 골드글러브 수상자'다운 호수비를 펼쳤지만, 타석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돌아섰다.

이정후는 1회 첫 타석에서 샌디에이고 선발 딜런 시즈의 시속 156km 빠른 공을 공략했다. 하지만 유격수 자리가 아닌 2루 근처로 이동한 시프트를 펼친 김하성이 2루를 지나서 공을 잡고 정확하게 송구해 이정후를 잡아냈다.

3회초에도 이정후는 시즈의 시속 154km 직구를 받아쳤지만 2루 근처를 지킨 김하성에게 걸렸다.

이정후는 타점 기회는 놓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가 2-0으로 앞선 5회 1사 2, 3루에서 이정후는 시즈의 시속 141km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유격수 희생플라이를 쳤다.

8회에는 아예 야수가 잡을 수 없는 외야 관중석으로 타구를 보내 빅리그 첫 홈런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이고를 9-6으로 꺾고, 1패 뒤 2연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 LOTTE CINEMA | 총장로관

##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뎀글부대
- 2관 뎀글부대
- 3관 1980
- 4관 뎀글부대, 1980
- 5관 파묘, [위드키즈]레벨스쿨 2: 부활절 대소동
- 6관 파묘
- 9관 고질라 X 콩: 뉴 엠파이어
- 7관 씨네마플: 둔: 파트2, 가여운 것들, 드림썹3
- 8관 씨네마플: 국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형, 다시 김대중-함께 합시다

### 광주예술의전당

### 문의 062)613-8233

2024년 광주상설공연(4월)  
 일시 : 2024-04-06(토) ~ 2024-04-28(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안승민 개인전 <점-존재>  
 일시 : 2024-03-29(금) ~ 2024-04-28(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